

# 프레임의 명명과 전환 및 검증에 관한 연구

## : 영국 스코틀랜드의 지방자치와 독립논의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Naming, Transformation and Confirmation  
: Centered on the Devolution and the Independence of Scotland in the United  
Kingdom

이 광 석\* · 권 기 석\*\*

Lee, Kwang-seok · Kwon, Ki-seok

### ■ 목 차 ■

- I. 서론
- II. 자치권 확대와 독립에 관한 개요
- III. 프레임 논의의 이론적 기초와 연구방법론
- IV. 전개과정에서의 프레임 고찰
- V. 한국에의 시사점: 결론에 대신하여

스코틀랜드의 독립 여부는 지방자치의 확대인가 독립인가로 요약된다. 2012년 6월 14일 기준으로 독립찬성이 27%에 불과하여, London의 중앙정부도 독립을 주민투표로 결정하더라도 부결될 것이라는 확신에서 독립에 관한 주민투표를 허용하였다(이른바 Edinburgh Agreement). 그러나 스코틀랜드 독립찬성 진영의 프레임 작동으로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중앙정부를 비롯한 독립반대진영의 프레임 전환을 초래하였고, 그 과정에서 몇 차례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마침내 2014년 9월 18일의 주민투표는 16세 이상인 전체 유권자 428만3,392명 가운데 84.6%가 참가해 독립 찬성표가 45%, 반대표가 55%로 약 38만 표 차이로 독립이 부결되었다.

어떻게 이런 변화를 나타냈는가를 프레임 변화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는데, 구조적 관점으로 살펴보고 시간적 관점으로 고찰해 본다. 이를 위해 이정표라고 말할 정도의 굵직한

\*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 한밭대학교 공공행정학과 조교수

논문 접수일: 2015.12.15, 심사기간(1차): 2016.12.15~2016.3.21, 게재확정일: 2016.3.21

사건들과, 현상을 바꾸어 보려는 쪽과 현상을 유지하려는 쪽이 누구나라는 두 가지를 기준으로 삼아, 제1기, 제2기 및 제3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각 시기의 프레임을 시맨틱네트워크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이해관계프레임, 통화동맹프레임, 인물프레임과 삶의 질 프레임으로 명명하였다. 프레임들의 검증은 Quine의 캘큘러스(calculus)를 변형하여 이용하였는데, 그 자료는 여론조사 기관인 YouGov의 여론조사를 참고하였다.

이 논의의 시사점은 많은 이슈의 제기보다는 대중이 바라보도록 프레임을 걸어서 대중이 그 시각에서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는 지름길이라는 의미이다.

□ 주제어 : 스코틀랜드의 지방자치와 독립, 프레임의 명명과 전환, 프레임 검증, 캘큘러스(calculus), 시맨틱네트워크분석,

Whether Scotland should be an independent country or not is very interesting research subjects to Korean scholars, because many kinds of techniques and methods to persuade Scottish had been shown in the referendum.

The Independence was rejected in the referendum. Pro-independence marked 45%, while anti-independence marked 55%, even though the opinion poll during stumping period showed the Independence could be achieved.

This paper aims to show how the fluctuation would be possible and what made it possible, centered on frame method. Also this paper aims at naming, transformation, and verification of the frame in the independence poll process, based on structural viewpoint and time-differential perspective. In order to do so, this paper establishes three stages based on well-known milestones: Edinburgh Agreement(15.Oct.2012), Currency Union(19.Jan.2014), the debut of Mr. Brown(8.Sep.2014). The first stage was the period from Edinburgh Agreement to Currency Union and the second stage covered the period from Currency Union to the debut of Mr. Brown. The third stage was the period from the debut of Mr. Brown to Scottish referendum.

□ Keywords: Scottish Independence; devolution; frame method; naming, transformation and confirmation; calculus

## I. 서론

헤겔의 명언 중에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에 난다’고 한다. 그 말을 이 글에서 논의하는 스코틀랜드의 독립 이슈에 적용하면 이제 거의 종결된 사건에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고 토론할 가치가 있다는 점이다.<sup>1)</sup> 그 가치 있는 토론이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영국 정부를 포함한 독립반대진영과 스코틀랜드 정부를 포함한 독립찬성진영은 상황의 흐름을 분석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여론이 흘러갈 때, 프레임이라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 프레임 중에는 한국의 사회과학계에서 논의하지 않았던 인물프레임도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이런 연유로 영국 스코틀랜드의 지방자치와 독립 논의에서 프레임의 명명과 그 전환 및 검증을 논의해 본다.

1707년의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연합은 대영제국(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의 형성으로 이어져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이 되었고, 아담 스미스(Adam Smith)나 데이비드 흄(David Hume)에서 볼 수 있듯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공헌은 문화의 융성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 이래로 스코틀랜드 인들은 그들의 정치적 권한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온 결과, 1999년에 권한이양(devolution)이라는 원칙 아래 스코틀랜드 의회가 성립되었다.<sup>2)</sup> 그 이후 새먼드(Alex Salmond)가 이끄는 스코틀랜드 독립당(Scottish National Party, 이하 SNP)이 다수당이 되자 그가 스코틀랜드 제1장관(First Minister)이 되었고, SNP는 스코틀랜드의 독립에 관해 주민투표(referendum)를 요구하였다.<sup>3)</sup> 영국 수상 데이비드 카메론(David Cameron)과 새먼드 사이에 맺어진 에딘버러 협정(Edinburgh Agreement)에 따라 스코틀랜드가 영국을 떠나는 문제를 2014년 9월 18일의 주민투표로 결정하기로 하였는데, 16세 이상인 전체 유권자 428만3,392명 가운데 84.6%가 참가해 독립 찬성표가 161만7,989표(45%), 반대표가 200만1,926표(55%)로 약 38만 표 차이로 반대가 앞섰다.<sup>4)</sup>

1) 영어 사용권에서 런던은 지명으로서의 런던과 정치권력의 중추, 즉 런던을 수도로 하는 정치권력으로서의 런던이 구별된다. 이 글에서는 후자를 표기하기 위해 London을 그대로 노출시킨다.

2) 의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의회가 성립되었다는 의미는 정부도 아울러 성립되었다는 의미이다. 이는 흔히 말하는 지방정부(local government)와는 다른 차원으로, 지방정부가 council에 대응하지만 스코틀랜드는 parliament와 상응한다.

3) 여기서 제1장관은 행정의 최고 책임자를 말한다. 또 referendum을 주민투표로 번역하였다. 국민투표라고 번역하면 웨일즈나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전체 영국인들의 투표를 의미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주민투표로 번역하였다.

4) 한국 언론의 보도를 보면 영연방과 영국을 혼동하는 표현을 볼 수 있다. 둘은 서로 다른 것으로 영연방은

이 과정에서 유럽연합(EU)- 영국(UK)- 스코틀랜드- 지방정부(county and borough)<sup>5)</sup>로 이어지는 중층 현상에 대한 비판으로 거버넌스 층이 얼마만큼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sup>6)</sup> 자치권 확대와 독립과의 관계 설정(devo-max vs. independence)이나 통화동맹의 체결이 가져오는 주권제약(erosion of sovereignty)은 어떻게 할 것인가의 이슈도 수면 위로 끌어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글에서는 스코틀랜드의 자치권 확대와 독립 논의 과정을 프레임의 명명과 그 전환 및 검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II. 자치권 확대와 독립에 관한 개요

스코틀랜드의 독립에 관한 논의의 일반 정보를 요약해 본다. 먼저 독립 전·후를 영토와 인구를 중심으로 비교해 보면 스코틀랜드가 독립하면 영국은 32%의 영토를 잃게 되어 현재 234,610 km<sup>2</sup>에서 164,523 km<sup>2</sup>로 축소된다. 인구의 경우는 8%가 축소되는데 현재 인구 64,100,000 명에서 58,700,000 명으로 줄어든다. 이 논의의 전제로 스코틀랜드 문제의 해결방법, 즉 자치권 확대와 독립 및 그 중간에는 여러 방법이 있는바, 이를 요약하면 아래 도표가 된다.

---

Commonwealth이고 스코틀랜드 독립은 United Kingdom(영국)의 내부 문제인 union의 해소문제이다 (<http://www.bbc.com/news/uk-scotland-scotland-politics-21618252>). 즉 307년 동안 계속되어 온 England와의 정치적 연합체(political union)의 해소 문제이다.

- 5)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를 통합한 unitary system이 존재하기도 한다. 이에 관해서는 이광석(2014)을 참조하라.
- 6) 약 15년 전 존 레드우드와 피터 히친스(John Redwood and Peter Hitchens)가 『영국의 종말』(The End of Britain) 또는 『영국의 해체』(The Abolition of Britain)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하였다. 그들은 영국의 종말이나 영국의 해체가 논의되는 배경에는 유럽연합(EU)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http://www.telegraph.co.uk/news/uknews/scotland/11080893/Scottish-independence-De-capitate-Britain-and-we-kill-off-the-greatest-political-union-ever.html>.

<표 1> 스코틀랜드 자치와 독립에 관한 여러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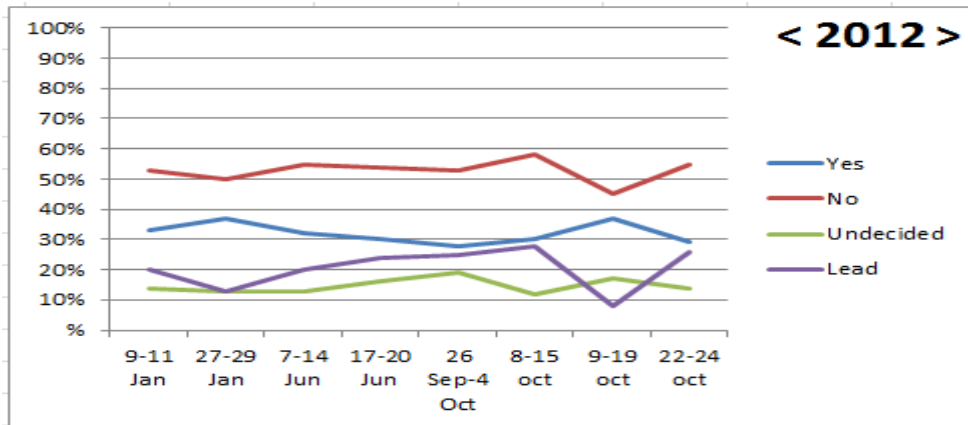
단일국가 (unitary state)	현재 상태 고수 (current status)	스코틀랜드 법	자치권 확대 (devo plus)	자치권 최대 (devo-max)	연합 왕국 하의 독립 (Indy Lite)	완전 독립 (Full Indy)
직접 통치 (No scottish parliament)	스코틀랜드 정부가 지출의 60%를 책임지만 스코틀랜드에서 창출되는 소득의 6%를 걷고 있음.	소득세에 추가적인 권한을 부여	스코틀랜드에서 지출되는 것에 대해 영국 정부와 스코틀랜드 정부 공동 책임	스코틀랜드에서 산출되는 대부분 또는 모든 소득세를 스코틀랜드 정부가 책임	헌법적으로 분리된 국가	완전한 독립국가 독립된 국가원수 (예를 들면 대통령)
		2015년부터 인지세와 쓰레기 세를 스코틀랜드 정부에 넘김	스코틀랜드 정부 책임 하의 조세: 소득세 및 법인세	스코틀랜드 정부는 영국에 보조금(grant) 지급	영국 여왕을 공동 국가원수로 함 (Use British Monarch)	독립된 국가원수 (예를 들면 대통령)
			영국정부 책임 하의 조세: 부가세, 사회보장세 (NI)	영국정부와 이양된 서비스의 적자 문제	방위동맹 통화동맹	통화동맹 없음

출처: devoplus.com

위에서 보듯 다양한 형태의 관계가 있으나 어떤 형태든지 초기에는 여기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아 이슈화도 되지 않은 듯하다. 이를 뒷받침하는 보기를 독립에 관한 여론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슈가 되기 전에는 스코틀랜드 정부가 아무리 독립투표를 주장하더라도 대체적으로 독립에 관한 여론 현황은 독립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찬성여론을 압도하였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아래 그래프이다.<sup>7)</sup>

7) 이하의 자료는 <http://ukpollingreport.co.uk/scottish-independence>와 [http://en.wikipedia.org/wiki/Opinion\\_polling\\_for\\_the\\_Scottish\\_independence\\_referendum,\\_2014](http://en.wikipedia.org/wiki/Opinion_polling_for_the_Scottish_independence_referendum,_2014) 및 yougov scottish independence poll을 이용하였다.

〈그림 1〉 2012년의 여론 추이



위 그래프에서 2012년 6월 14일 기준으로 독립찬성이 27%, 자치권 확대(devo-max)를 지지하는 비율이 41%, 반대하는 비율이 29%였다(D/K: 4%). 2012년 10월 15일의 에딘버러 합의(Edinburgh Agreement) 이후 2012년 10월 9일부터 19일 사이의 여론 동향도 대체로 독립찬성이 37%, 독립 반대가 45%, 미정(undecided)이 17%로 나타난다. 2012년 10월 22일과 24일 사이의 여론 동향은 독립지지율이 29%, 반대하는 비율이 55%, 미정이 14%로 나타나, 독립 반대가 26% 정도 앞서 있다.

프레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시기를 구분하는데, 그 기준은 두 가지로 첫째, 언론이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정표라고 말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굵직한 사건이며, 둘째는 그 사건들 사이에서 프레임을 거는 쪽, 즉 현상을 바꾸어 보려고 노력하는 쪽을 능동적 행위자(active actor)로, 현상을 유지하려는 쪽을 수동적 행위자(passive actor)로 명명하고 이들을 식별한다. 이 두 기준에 따르면 시기 구분은 2012년 10월 15일의 에딘버러 협정(Edinburgh Agreement)이라는<sup>8)</sup> 독립 논의의 공식화로부터 2014년 1월 19일 카니(Mark Carney) 영란은행(Bank of England) 총재의 통화동맹의 가능성이 제기된 시기까지를 제1기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London은 스코틀랜드 정부의 독립에 대한 주민투표를 어쩔 수 없이 수용하였으나 정책방향은 현상유지로 독립논의에 관한 논의는 애써 무시하였다. 한편 스코틀랜드 정부는 오래 동안 바라왔던 주민투표를 성취하였고, SNP가 다수당이 되었던 사례에서 보듯이 투표에서의 승리 가능성을 믿고 적극적으로 독립투표에 대비하였다. 특히 스코틀랜드 정부가 2013년 9월 『스코틀랜드의 미래』(Scotland's Future: Your Guide to an Independent

8) 에딘버러 합의(Edinburgh Agreement)에서 독립 투표는 ① 독립 찬반을 묻는 단일 문항(yes-no)으로 하고 ② 번복가능성은 불가하다(irreversible)는데 합의하였다.

Scotland)를 출간한 것은 이 시기의 백미(白眉)였다. 이 시기는 스코틀란드 정부가 능동적 행위자로, 영국 정부는 현상을 유지하려는 수동적 행위자로 기능한다는데 그 특색이 있다. 제2기는 2014년 9월 고든 브라운 前 수상의 등장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는 2014년 2월 13일 영국 재무부 장관 오스본(George Osborne)이 통화동맹의 불가 선언으로 이 통화동맹의 프레임이 더욱 달아올랐다. 이 시기는 영국 정부가 능동적 행위자로, 스코틀란드 정부가 수동적 행위자로 기능하였다. 능동적 행위자인 독립반대진영의 핵심인물은 세 사람으로 보수당의 現 재무부 장관 오스본과 노동당 출신인 前 재무부 장관 달링(Alistair Darling), 영란은행 총재 카니이다. 오스본은 잉글랜드 사람으로,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 보수당 정부가 채택한 긴축재정(austerity) 정책 때문에 스코틀란드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당사자로 인식되었으며, 스코틀란드 출신 달링은 아직 스코틀란드 사람으로부터 완전한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었다. 제3기는 London 측에서 고든 브라운 前 수상의 등장에서부터 (2014. 9. 8.) 스코틀란드가 주민투표로 영국에 남아있기로 결정한 시기까지이다. 이 시기에 스코틀란드 정부가 National Health Service(이하 NHS)를 비롯한 삶의 질이라는 프레임을 설정하였고<sup>9)</sup> London은 고든 브라운 前 수상이라는 스코틀란드 사람들로부터 신뢰받는 인물 교체를 통한 프레임 효과로 스코틀란드 정부의 삶의 질 프레임에 대응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London과 스코틀란드 정부 모두 능동적 행위자로 기능하였다. 이를 도표로 보인 것이 아래 <표 2>이다.

<표 2> 시기 구분

주요 사건		Edinburgh Agreement (2012.10.15)	통화동맹이 핵심사항으로 등장 (2014.1.19)	Gorden Brown 등장과 NHS를 비롯한 삶의 질 논쟁 (2014.9.8.)	투표로 잔류결정 (2014.9.18.)
시기 구분		제1기		제2기	제3기
행위자	영국 정부	수동적	능동적	능동적	능동적
	스코틀란드	능동적	수동적	능동적	능동적
인물	영국 정부	David Cameron	Mark Carney, George Osborne 및 Alistair Darling	Gorden Brown	
	스코틀란드	Alex Salmond	Alex Salmond	Alex Salmond	

이를 기초로 자세한 것은 IV장에서 논의한다.

<sup>9)</sup> NHS는 National Health Insurance의 약자로 이용시점에서는 무료인 영국 특유의 보편적 의료제이다. [http://www.dailyecho.co.uk/news/11457464.United\\_we\\_stand\\_divided\\_we\\_fall/](http://www.dailyecho.co.uk/news/11457464.United_we_stand_divided_we_fall/)

### Ⅲ. 프레임 논의의 이론적 기초와 연구방법론

#### 1. 프레임의 의미, 선행연구 분석과 문제점

프레임이란 세상을 보는 마음의 창으로 정의하기도 하고(최인철, 2007), 어떤 한 개념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일종의 배경지식이라고도 하며(오주영, 2010), 어떤 쟁점이나 사건을 어떤 체계로 보도하며 그것이 사람들의 현실 인식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연구하는 분야라고 한다(Hakoda, et al., 2010 : 498-499 ; 심준섭, 2012). 그 특징은 개념의 의미란 그 의미를 부여하는 프레임과 관련 속에서 정의된다는 것에 있으며(김동환, 1999), 이는 서양철학에서 인식 연구의 오랜 전통인 객관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Lakoff and Johnson, 1981).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사회과학 분야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먼저 심리학이나 신문방송학에서의 연구를 찾아보면, 김춘식·이영화(2008), 반현 외(2010), 이준웅(2000), 장덕현·김근배(2012)의 연구들이 있다. 행정학적 관점에서의 선행연구는 강민아·장지호(2007), 김창수(2007: 2008: 2010: 2011), 심준섭(2012), 심준섭·김지수(2011a: 2011b), 은재호·김형성·최대용(2011), 은재호(2011) 등이 있는데, 거의 갈등 관리로 접근하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그 중 대표적인 논문들을 살펴보면 심준섭(2012)에서는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갈등 프레임은 분명한 정체성 프레임과 특징부여 프레임을 기초로 환경위험 프레임이 지배적인 프레임이고 정부 측은 특징부여 프레임과 갈등관리 프레임이 지배적 프레임으로 주민의 반대를 손익 프레임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장한다. 은재호(2011)의 연구는 국방·군사시설 입지를 둘러싼 현 시기 민·군 갈등의 원인은 인지적 원인과 구조적 원인 등의 2개 유형으로 요약된다고 주장한다. 김창수(2007)는 분쟁은 서로 다른 프레임이 작동할 때로 정의하고 선택적 주목(selective attention)이라는 전략을 사용함에 유의한다. 즉 상대방의 부정적 속성에 낙인을 찍음으로써 자신들의 프레임에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려고 한다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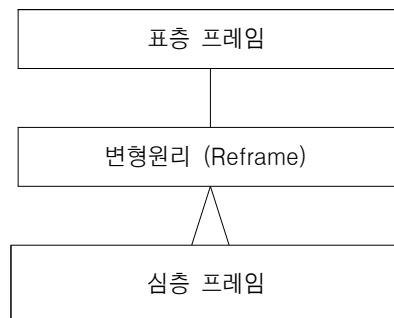
기존 연구의 공헌은 이 방법론이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상당한 위치를 점유하게 하였다. 즉 인기 있고 이용가능하게 제시한 것이 그 공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문제점은 표층에서의 현상에만 충실하고 심층 개념이 도입되지 않아 심층에서의 흐름을 포착하지 못하였다. 또 표층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 덧씌우기 효과(priming effect)가 많이 등장하지만 기존의 프레이밍 연구에서 놓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의 더 큰 문제점은 명명(naming)의 과정에 관한 설명과 프레임 검증이 없다는 점이다.<sup>10)</sup>



## 2. 프레임의 방법과 기법(method and technique)

프레임에서의 관점은 세 가지로 구성된다. 그 첫째는 구조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며 그 둘째는 시간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고(Saussure, 1972), 셋째는 집합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다.<sup>11)</sup> 구조적 관점부터 살펴본다. 철학이나 심리학 등에서의 연구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인식하는가가 중요하다는 시사이다. 프레임의 연구란 인식주체가 어떤 언어를 들었을 때(예를 들면 의사) 떠오르는 생각체계(예를 들면 병원)을 말한다. 즉 의미 창출이란 심층과 표층으로 나눌 수 있고 따라서 심층 프레임과 표층 프레임으로 구별될 수 있다(Chomsky, 1966; 2006; Harris, 1988; Wittgenstein, 1978). 물론 용어는 약간 차이가 있는바, Tannen(1993)는 전자를 표층 증거(surface evidence)로, 후자를 심층 예상(underlying expectations)로 부르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형원리인데 리프레임(심준섭, 2012)이라고도 한다. 프레임을 걸었지만 그 기대효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이를 수정하고 또 새로운 프레임을 창출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후술하는 덧씌우기 효과(priming effect)가 나타나기도 한다. 즉 표층과 심층의 프레임 연결과, 표층 프레임에서 그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부정적 또는 긍정적으로 무엇인가를 덧씌우게 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아래 <그림 2>이다.

<그림 2> 표층과 심층의 프레임의 구조



10) 이에 관해 논의한 책으로는 Gibson(2004)를 참조하라.

11) 구조적으로 보는 견해를 구조주의라고 하고 이는 시간적 차이로 보는 견해와 아울러 소쉬르에게서 비롯하고 데리다가 발전시켰다(Saussure, 1972; Harris, 1988; Sarup, 1993). 집합으로 보는 견해는 B. Russell에 의해 발전하였다(Doxiadis & Papadimitriou, 2009). 시간적 차이로 보는 견해에 기초하면 미래를 향하여 올바른 프레임 선택을 선견지명라고 하고, 과거로 향하여 판단하는 것을 후견지명(hindsight effect)이라 한다(최인철 2007).

이 프레임 구조는 경험성을 위주로 하는 심리학이나 분석철학, 언어철학에서 입증되었다(곽호완 외, 2004; Munz, 2004,75).

둘째의 관점은 시간의 흐름이라는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앞서 시기를 3 단계로 구분하였기에 이 기준에 따라 다음 IV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셋째의 관점은 집합의 관점이다. 이는 집합  $A = \{x, y, w, \dots\}$ 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이 중에 가장 수용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순서에 따라 제1프레임(primary frame)으로, 그렇지 않은 것을 제2프레임(secondary frame)이나 제3프레임(tertiary frame)으로 가정한 후에, 제1프레임부터 꺼내든다. 문제는 당사자 A의 프레임  $A = \{x_1, y_1, w_1, \dots\}$ 와 당사자 B의 프레임  $B = \{x_2, y_2, w_2, \dots\}$ 에서<sup>12)</sup> 어느 한쪽에서 효과가 예상대로 나타나지 않다면 프레임 전환을 꾀한다. 즉 집합의 관점에서 그 효과가  $x_1 > x_2$ 라면 집합 B의 당사자는 제1프레임을  $x_2$ 에서  $y_2$ 로 옮겨가려 한다. 후술하는 바처럼 통화프레임이 효과가 있으면 제1프레임으로 이용하지만 시간의 경과 후 이익을 보는 쪽과 손해를 보는 쪽으로 나뉘는 경우 프레임 전환을 꾀한다.

앞서 지금까지의 연구들에서 명명(naming)의 과정에 관한 설명과 검증이 없다는 점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하였는데, 이 글은 이를 보충하기 위해 Quine(1961,134)의 켈쿨러스(calculus)를 변형하여 이용하고,<sup>13)</sup> 기법은 시맨틱네트워분석을 활용한다. 켈쿨러스(calculus)를 변형하여 명명하고 정의하면 아래와 같이 된다.

〈켈쿨러스 1〉 'α' 는 'β' 을 P에서만 명명한다.

〈켈쿨러스 2〉 'α' 는 모든 'β' 에 대해 P에서 수용가능하다.<sup>14)</sup>

이를 검증하면 아래 켈쿨러스와 같은 형식을 밟는다.

12) 집합의 원소들 중에서 같은 원소들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같은 문제의 당사자들이라 할 수 있고 같은 원소를 놓고 경쟁할 때 치열하다고 할 수 있다.

13) 켈쿨러스에 대해서는 강신택(1981)을 참조하라. 여기서는 Quine(1961)의 관점을 변형시키는데, Quine의 원래의 켈쿨러스는 다음과 같다.

〈calculus 1〉 'α' is true if and only if β.

〈calculus 2〉 'α' is true of every β and nothing else.

〈calculus 3〉 'α' names β and nothing else. (Quine,1961:134).

이 과정에서 도입되는 것은 수용가능성과 유효성이다.

14) 이 수용가능성은 Popper의 주장으로 원어는 Acceptance로 Lakatos는 이를 Acceptability이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 수용가능성의 기준은 대상과 속성의 두 가지를 그 구성요소로 하는데(Charlton 2011,37-55), 누구를 주된 타겟으로 할 것인가?가 대상이라면, 명명된 언어의 효과 중 어느 측면을 강조할 것인가가 속성이다. 이에 관해 자세한 논의는 Lakatos(1978,166-167), 박은진(1999,79-144), Chalmers(1982) 등을 참조하라.

〈캘큘러스 3〉 ‘ $\alpha$ ’ 는 ‘ $\beta$ ’ 일 경우에만 P에서 유효성이 있다. (P: 특정한 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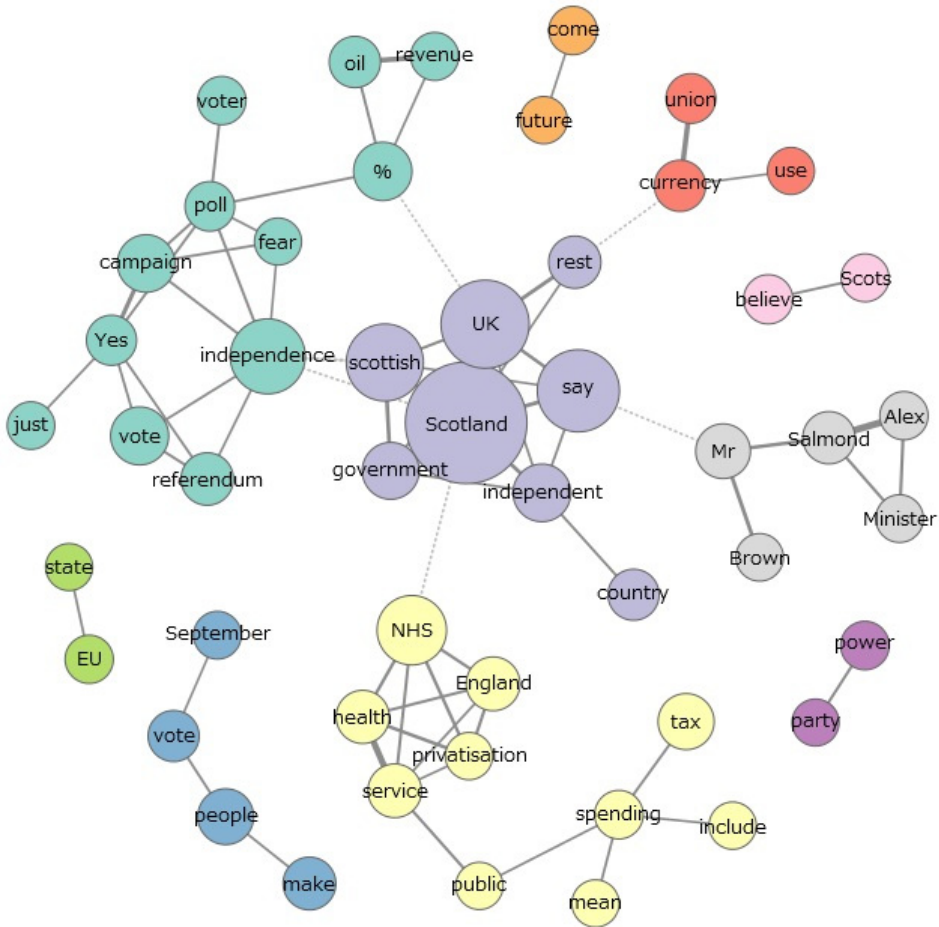
여기에서  $\alpha$ 에는 명명되는 프레임이 들어가고, 이 글에서 명명된 프레임들은 이해관계, 통화동맹, 인물 및 삶의 질 등이다.  $\beta$ 에는 현실 상황, 즉  $\alpha$ 에 상응하는 사태가 들어간다. 명명된 프레임들( $\alpha$ )과 현실( $\beta$ )의 유효성 판단은 여론조사 기관인 YouGov에서 공표한 여론조사를 검증으로 이용하였고, 그에 따라 명명된 프레임이 그 시점에 어울리는지를 판단했다. 또 명명된 프레임이 〈캘큘러스 2〉에서 수용가능성이 있는지, 또 위 당사자 어느 한쪽에서  $[A = \{x_1, y_1, w_1, \dots\}]$ 와  $B = \{x_2, y_2, w_2, \dots\}]$  중에서 설정된 프레임을 재평가하여 프레임의 유지 및 프레임의 전환을 피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 연구의 기법으로는 시맨틱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였는데, 이 분석은 단어들의 공유된 의미를 토대로 체계적 구조를 분석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시맨틱네트워크 분석은 핵심(prominent) 단어 간의 의미론적 연관(semantic association)이 중요한 요소이고 핵심단어의 동시발생 빈도는 소셜네트워크 관점에서 중요한 관계가 된다. 시맨틱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텍스트 분석의 장점은 표준화되지 않은 텍스트 자료로부터 구조화된 형태의 정보를 추출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패턴과 의미를 시각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시맨틱네트워크 분석은 텍스트에 나타난 주요 단어 간 연결을 통해 이루어진다. 본 분석에서는 일본에서 개발한 시맨틱네트워크 분석 프로그램인 KHCoder 2.beta.32d 버전을 사용하였다(<http://khc.sourceforge.net>). 분석의 자료로는 영국 야후([www.yahoo.co.uk](http://www.yahoo.co.uk))와 영국 공영방송인 BBC([bbc.co.uk](http://bbc.co.uk))에서 스코틀랜드의 독립에 관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는데, 이 자료는 1,119개의 문단과 1,500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졌다. 분석결과 가장 많이 출현한 단어는 “Scotland”로 469회, 다음으로 “UK”가 272회, “independence”가 195회, “NHS”가 162회, “vote”가 95회로 나타났다. 즉 주제가 “Scotland”로 469회, 다음으로 “UK”가 272회, “independence”가 195회, “NHS”가 162회, “vote” 등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도표로 나타낸 것이 아래 〈그림 3〉이다.

〈그림 3〉은 지방자치와 독립논의의 시맨틱네트워크로, 네트워크 내에서 군집을 표현한 그림이다. 군집형성의 알고리즘은 모듈래리티(Modularity)인데, 이는 군집 내의 연결이 군집 밖의 연결보다 많도록 노드를 그룹화한다. 그림에 따르면, “Scotland”를 중심으로 하여 “UK”, “Government”, “independent” 등의 단어가 중앙에 군집을 이루어 프레임의 주제를 보여주고 있다. 아래에 노란색으로 “NHS”, “health”, “privatization” 등의 단어가 군집을 이루고, 오른쪽에 회색으로 된 부분은 “Salmond”, “Brown” 등이 있다. 왼쪽 상단에는 “independence”를 중심으로 하늘색의 방사형으로 “referendum”, “campaign”, “%”, “oil”, “revenue”, 등의 단어가 군집을 형성하고, 붉은 색으로 된 오른쪽 상단에는 “currency”, “union” 등이 있다. 단어를

표현한 노드의 크기가 큰 것은 그 출현 빈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연결을 의미하는 링크가 굵을수록 공동 출현이 많이 된 것이다. 최소한 30회 이상의 출현빈도를 가지는 69개의 노드만을 표현하였으며, 상위의 굵기를 가지는 링크만을 표현하였다.

<그림 3> 시맨틱 네트워크의 세부군집



주) 노드의 크기는 빈도수, 링크의 굵기는 공동출현 횟수에 비례

위 그림에서의 함축을 재정리하면 주제에 대한 프레임으로 이해관계프레임(그림에는 oil, revenue, %, fear, just 등 포함), 통화동맹프레임(그림에는 currency, union 등 포함), 인물프레임(Salmond, Brown 등 포함)과 삶의 질 프레임(NHS, privitization, health, service, public, spending 등 포함)으로 선정하였고, 연결되지 않는 용어나 영국(England)

민족과 스코틀랜드 민족 사이의 감정 등으로 표면적으로 공식화하기 어려운 언어들을 구조의 관점에 포함시켰다.

## IV. 전개과정에서의 프레임 고찰

### 1. 지방자치와 독립 논쟁의 축

SNP는 스코틀랜드 정부의 여당이 된 후에 독립에로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는데,<sup>15)</sup> 여기서 독립을 어떻게 볼 것인가? 만약 독립이 아니라면 그 대안은 무엇인가? 등의 이슈로 환원된다. 이제는 이 주제를 놓고 4 가지 차원 즉 인식 축, 주체 축, 주제 축, 시간의 흐름 축을 기준으로 그 전개를 살펴본다. 다만 앞의 셋은 구조적 관점으로 묶고, 시간의 흐름은 다른 장에서 설명한다.

#### 1) 인식 축 (반영 vs. 비판)

인식 축이란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축이다. 현실을 인정하는 관점에서는 바넷 공식(Barnett formula)을 중심으로 접근하는데,<sup>16)</sup> “무역을 누구와 하는가?-잉글랜드”라는 문답으로 정리한다. 따라서 정답은 잉글랜드와 ‘함께 더 나은 미래로(Better Together)’로 요약된다. 이들은 주로 독립반대진영 측인데, 현실인식에서 미래의 (낙관적) 전망에 의문을 나타낸다. 즉 ‘스코틀랜드의 애국심(patriotism)으로는 문제를 풀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냉철한 현실의 인식을 촉구한다. 예컨대, 석유자원의 평가에서도 낙관적 전망에 기초한 추계가 아니라 냉엄한 현실에 기초한 정확한 추계를 주장하고 그 결과 독립찬성진영 측의<sup>17)</sup> 추산은 과대평가이며 따라서 미래의 전망은 우울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독립찬성진영 측은 “스코틀랜드의 일을 누가 제일 잘할 수 있는가? - 우리 스코틀랜드 사람들”이라는 문답으로 정리한다. 따라서 앞서 서술한 중층의 거버넌스를 문제 삼으며,

15) 그 대표적인 보기가 1314년의 배녹번(Bannockburn) 전투의 700 주년 기념일인 2014년을 투표일로 선정하는 것이나 16세까지 투표연령을 인하하는데 동의한 데에서 볼 수 있다.

16) 바넷 공식은 스코틀랜드를 우대하는 정책의 표본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에 스코틀랜드를 먼저 고려한 후에 영국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17) 독립찬성진영은 SNP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스코틀랜드 정부와 긴밀한 관계에 있다. 이에 비해 독립반대진영은 Better Together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이어져 있으며 London과 연결되어 있다.

유럽연합에 우호적인 태도를 취한다. 또한 그들은 독립반대진영 측의 미래 인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데, 위 석유를 예로 들면 '석유가 나지 않는 국가도 번영할 수 있는데, 석유가 나는 우리에게 미래가 우울하다'라는 주장은 난센스이며, '독립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독립 후의 전망은 밝다'라는 견해이다.

독립찬성진영 측에서는 독립된 스코틀란드가 독립국가로서 더 번영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권한 이양을 주장하는 독립반대진영 측에서는 독립하게 되면 엄청난 손실이 예상되므로 독립은 좋지 않은 선택이라 주장한다. 이들 주장의 밑바닥에는 이미 많이 지적되었듯이 감성적 요인 대 이성적 요인(heart vs. head)이 자리 잡고 있다.<sup>18)</sup>

## 2) 주체와 대상 측

주체 (leader or leading group)들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캐머런(David Cameron) 영국 수상과 새먼드(Alex Salmond) 스코틀란드 제1장관이 대립하는 구도였다. 이 과정에서는 후자는 독립여부에 대해 주민투표를 요구하였고 이를 수락하면서 프레임 논의가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어서 독립 투표에 대비하여 각각의 진영이 조직체를 정비하게 되었는데, 독립반대진영(no-campaign) 측에서는 달링(Alistair Darling) 전 영국 재무장관을 중심으로 Better Together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자치권 확대를 통한 독립 반대를 이끌었고, 캐머런 수상이나 통화동맹 불가를 선언한 오스본(Osborne) 재무장관, 고든 브라운(Gordon Brown) 전 수상도 포함시킬 수 있다. 캐머런 수상과 오스본 재무장관이 스코틀란드 투표권자들에게는 비우호적인 인물들이었는데 비하여, 고든 브라운 전 수상은 스코틀란드 사람들이 신뢰하는 인물이므로 인물프레임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독립찬성진영(yes-campaign) 측에서는 새먼드 제1장관(SNP 대표)이 지도하였다. 독립찬성진영의 가장 큰 우군(友軍)은 투표권을 16세부터 부여하는 선거연령 인하의 효과였다. 그 효과로 인하여 예상을 뛰어 넘는 지지율 변동이 있었고, 이 현상을 바꾸려는 측과 현상을 유지하려는 측 사이에서 인물을 통한 프레임 변화를 보이는데, 이 새로운 인물이 브라운 전 수상이다. 이로써 제3기에 접어드는데, 제3기는 고든 브라운과 알렉스 새먼드의 대립 구도로 전개되었다.

초기 London의 대체적인 시각은 '많은 스코틀란드 사람들은 이미 영국인이라는 감정(sense of Britishness)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자극하는 전략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라는 견해였다.<sup>19)</sup> 따라서 독립찬성진영마저도 역사적 유대나 가족적 유대로 보아서 스코틀란드는

<sup>18)</sup> <http://www.thetimes.co.uk/tto/life/article4195567.e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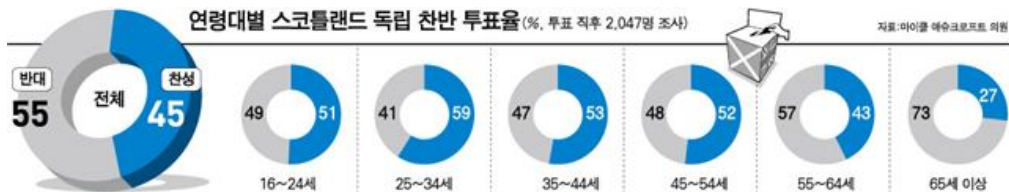
<sup>19)</sup> 2014년 조사에서는 네 사람 중에 한 사람 꼴로 스코틀란드 사람들이 영국인이 아니라 스코틀란드 인

독립 후에도 영국인(British)으로 남을 것이라고 설득하거나, 독립찬성진영 측이 영국 왕을 국가원수로 하는 왕정(Monarchy)을 주장하였다. 이는 스코틀랜드인들의 2/3가 화폐(영국 파운드화)를 공유하고자 하는 욕구 및 BBC(영국의 공영방송)가 공유되어야 한다는 여론에서 보듯이 거의 하나의 문화로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핵심은 이들을 얼마만큼 독립지지로 이끌어 내는가가 줄곧 쟁점이었다. 독립지지층은 세대별로 또는 성별로 나누어졌는데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세대별로 살펴보면 젊을수록 찬성, 나이가 들수록 반대라는 시각의 차이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대체적으로 스코틀랜드 독립투표가 부결된 것은 변화에 불안을 느끼는 장·노년층의 독립에 대한 거부감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추측됐다(<https://uk.news.yahoo.com/scotland-s-olderpeople-saved-union-192600108.html#GJzT10>).

이를 도표로 보인 것이 아래 <그림 4>이다.

<그림 4> 연령 세대별 찬반투표 추이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찬성하고 여성은 반대를 보여 주었는데, 이는 여성이 불확실성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으로 추정하였다. 대체로 여성들은 “미래를 모른다면 미래에 걸지 말라”의 태도를 보이는바, 이는 남성들의 “미래가 불확실하더라도 기회로서 알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라는 태도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 유권자가 정치에 덜 관심이 있고 (untested political propositions) 위험 회피적임을 보여 주고 있다. 이 태도들의 기저(基底)에는 정체성보다는 현실의 경제 사정(pocketbook issues)이 더 관심사임을 입증한다.

### 3) 주제 축

이 독립의 이슈 이면에는 35년 전 1980년대의 대처의 방향전환(Thatcher's program)과

(Scottish, not British)이라고 답했다. 따라서 이들은 London의 입장에서 설득하기 힘든 대상으로, 독립찬성진영 측에서는 든든한 우군으로 보았다. 정체성에 대해 가장 많이 나온 답은 영국인보다는 스코틀랜드인(more Scottish than British)이거나 둘 다 해당한다(equally both)였다. 즉 스코틀랜드인들이 영국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관계가 있다. 대처의 방향전환에 가장 타격을 받은 곳이 스코틀란드였다.<sup>20)</sup> 즉 스코틀란드의 산업은 파괴되었고, 대량 실업이 발생하였고 더욱이 스코틀란드 사람들이 싫어했던 인두세(poll tax)는 가장 먼저 스코틀란드에 도입되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에 노동당이 집권했을 때 그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포기하고 전후의 합의(post-war consensus)로 되돌아가는 것을 바랐다.<sup>21)</sup> 그러나 그들은 또 다시 실망했다. 물론 그들이 받아낸 것은 63.5%의 찬성으로 자치권 확대(devolution)를 통한 스코틀란드 의회(Scottish Parliament)를 설치하였으나 권한은 이른바 세금 걷는 것뿐이었다.<sup>22)</sup>

독립찬성진영에서 내건 표어인 “스코틀란드의 독립은 스코틀란드 사람들이 스코틀란드에 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려는 것이다”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다. 예컨대 National Collective라는 단체에 속한 예술가와 작가들의 단체는 문화적 부흥(cultural reawakening)을 외치며 독립을 지지했다.<sup>23)</sup> 독립이라는 기회가 새로운 문화적 아이디어, 자신감, 표현의 새로운 물결을 불러올 것이라는 이유에서이다. 이는 문화에만 그치지 않고 정치적 면에서도 국제연합(United Nations), NATO, 유럽연합(European Union)이나 많은 국제기구에서도 영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어 한다. 만약 독립이 된다면 유럽의회 의원(MEPs)의 선출에서도 스코틀란드 의석이 6 의석에서 12 의석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비해 경제를 비롯한 삶의 수준에서는 우려하는 흐름이 주류를 이룬다. 여론조사 기관인 YouGov의 여론조사 결과(2014. 9. 2일자)는 스코틀란드 사람들은 독립 후 국가적 관점에서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는 생각이 44%로 그렇지 않다는 35%를 앞질렀다. 개인의 생활에서는 41% 대 21%로 거의 2배의 수준으로 독립이 가정경제에 미칠 영향을 걱정했다. 스코틀란드 사회조사(Scottish Social Attitudes survey)의 2012 조사에서는 스코틀란드 사람들이 나빠질 것과 좋아질 것이 균등한 반응을 보였으나, 2014 조사에서 보듯이 비관적으로 돌아섰다. 이는 점점 현실 인식에 더 치중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 대표적인 보기가 주택가격이었다.<sup>24)</sup> 부동산 회사인 Zoopla 조사에 따르면 만약 독립한다면 주택시장의 불확실성과

20) 1945-79년 사이에는 영국 정부의 기본 방침은 (보수당이든 노동당이든) 이른바 전후의 합의에 충실하였다. 완전고용의 유지, 정부의 개입, 공적 소유권 제도, 부의 재분배 등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국가 형태였다. 이 합의는 대처(Margaret Thatcher)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즉 민영화, 부자 감세(tax cuts for the rich), 완전고용의 포기 등으로 금이 가게 되었다.

21) 전후(戰後)의 합의는 복지국가 건설을 지향하는 영국 정당 간 합의로 영국 정치의 근간이 되었다. 그러나 대처 정부 시절에 이 합의를 수정하였다.

22) <http://www.thetimes.co.uk/tto/life/article4195567.ece>. 와 [http://www.hankookilbo.com/v/0404\\_dadb3f544888a4dab2991d8ffb9](http://www.hankookilbo.com/v/0404_dadb3f544888a4dab2991d8ffb9) 참조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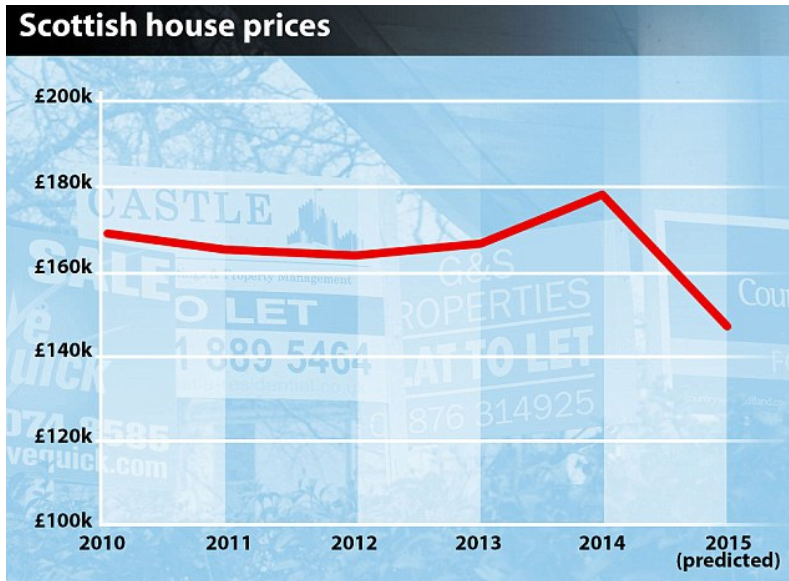
23) [http://en.wikipedia.org/wiki/Scottish\\_independence](http://en.wikipedia.org/wiki/Scottish_independence)

24) <http://www.dailymail.co.uk/news/article-2756283/Scottish-independence-referendum->



혼란 및 주요 기업들의 본사나 사업지(事業地) 이동으로 인하여 주택가격이 £ 30,000 또는 17.5% 정도 떨어질 것으로 조사되었다.<sup>25)</sup> 아래 그림은 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5> 스코틀랜드의 주택가격 동향



다만 경제생활에서 중요한 요소는 석유로, EU 석유 매장량의 64%가 스코틀랜드 연안에 있다고 스코틀랜드 정부가 주장하였다. 따라서 독립찬성진영 측의 효과적이고 강력한 구호는 스코틀랜드가 독립하여야만 스코틀랜드 사람들을 위해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데이비드훔연구소(David Hume Institute)는 스코틀랜드의 석유와 가스의 매장량은 4조 파운드(£ 4 trillion)에 불과하다고 추산하였다. 한편 재생에너지의 경우에는 독립이 되면, 유럽 풍력의 25%, 유럽의 25%의 조력에너지 (tidal energy), 그리고 유럽의 10%의 물결에너지(wave energy)를 차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새먼드 제1장관은 이것들이 스코틀랜드의 재산업화(re-industrialization)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sup>26)</sup>

스코틀랜드 독립에 아주 중요한 요소인 북해의 원유와 가스의 매장량은 얼마인가?<sup>27)</sup> 독

House-prices-fall-30-000.html#ixzz3DOexhmO8

25) <http://www.dailymail.co.uk/news/article-2756283/Scottish-independence-referendum-House-prices-fall-30-000.html#ixzz3DOexhmO8>

26) [http://en.wikipedia.org/wiki/Scottish\\_independence](http://en.wikipedia.org/wiki/Scottish_independence).

27) 보통 본문처럼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여기에서 나오는 세금 중 스코틀랜드 몫은 얼마인가가 정확한 표현이

립찬성진영 측은 스코틀랜드 수입의 1/10 (대략 £ 1bn/year) 정도의 석유생산기금을 형성할 수 있고 이는 노르웨이에서 운용되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말한다. 이 액수는 한 세대가 지나면 £ 30bn의 국부(sovereign wealth pot)가 창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독립반대진영 측은 북해 유전은 점점 굴착이 어려워지고 새로운 유정(油井) 발견이 어려우므로 영국과 함께 할 때에 그 성공이 계속될 수 있으리라고 주장한다. 북해 유전 전문가인 이언 우드(Ian Wood) 경은 원유 채굴가능기간이 15년만 남았으며 그 이전에 이미 원유채굴산업이 쇠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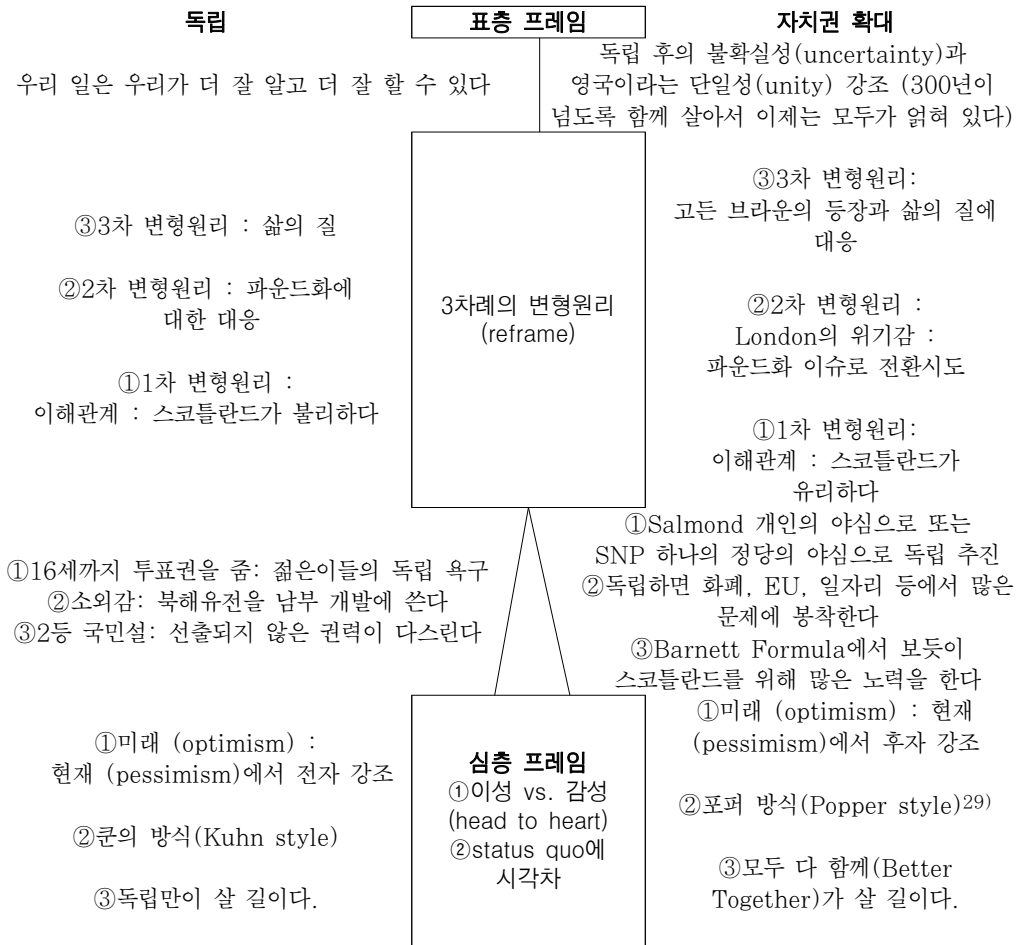
이제는 앞서 서술한 덧씌우기 효과(priming effect)에 대해 살펴본다. 여기에는 긍정적 덧씌우기와 부정적 덧씌우기가 있는데, 전자를 살펴보면 독립반대진영 측은 스코틀랜드가 있었기에 영국이 오늘날처럼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번영하는 정치체가 될 수 있었다고 추켜세웠다. 그러나 여기서의 초점은 부정적 덧씌우기이다. 독립반대진영 측은 새먼드를 미래 계획이 없는 무모한 사람(man without plan)으로, 모든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생활에 질적 저하를 가져오는 일임에도 독립을 추구하는 것은 새먼드의 개인적 야심에 기인함을 부각시켰다. 이에 대해 독립찬성진영 측은 독립의 추구는 SNP나 새먼드의 개인적 야심을 위함이 아니라 정부 선택권을 돌려주고 보다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함(building a fairer society)이라 밝혔다.<sup>28)</sup> 한편 독립찬성진영 측은 덧씌우기 효과는 캐머론 영국 수상을 헛소문 퍼뜨리는 사람(scaremongering)으로 매도하면서, 스코틀랜드는 London의 영국 의회로부터 “족쇄(shackles)”에 채워져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 의미는 은연 중 지배자 또는 식민종주국이라는 덧씌우기를 내포한다.

위에서 제시한 <그림 2>에 각 요소를 대입하면 아래 <그림 6>과 같이 변형된다.

라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북해 유전(North Sea oil)에서 나오는 원유는 40bn 배럴(barrels)로 추정되고 24bn이 채굴하였다. 향후 30-40년 생산가능하고 2018년까지 스코틀랜드 정부에 따르면 £ 57bn 정도의 세 수입(tax revenue)이 예상된다고 한다. 그러나 영국 정부 추계로는 2017-18까지 38% 정도의 조세 수입의 하락이 예상된다고 한다.

28) 2014. 9. 4. 일자 BBC 보도를 참고하라(<http://www.bbc.co.uk/>).

<그림 6> 스코틀랜드 독립 프레임(구조의 관점)



## 2. 독립 논쟁의 시간의 흐름

시간의 흐름에서 중요한 것은 스코틀랜드가 미래지향을 이야기하는데 비해, 영국은 과거 지향을 이야기한다(<그림 2> 및 <그림 6>의 심층프레임 참조). 프레임이 열리기 이전에는 (즉 에딘버러 합의 이전) 독립지지율은 25% 정도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London의 입장에서선 선불리 논쟁을 불러 일으켜 이슈화하기보다는 방관 및 무시로 일관하였다. 반대로 독립

29) 여기서 쿤의 방식(Kuhn style)은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다는 시각이고, 포퍼 방식(Popper style)은 문제가 문제라는 관점이다(Chalmers, 1982).

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슈화하려는 전략에서 영국 수상과 스코틀랜드 제1장관과의 독립에 대한 토론을 줄기차게 요구하기도 하였고, 역사적 차이를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을 시간의 흐름 순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1) 이해관계 프레임 등장

스코틀랜드 독립과 자치권 확대 중 어느 쪽이 더 많은 이득을 안겨 주는가? 영국 재무부는 독립하게 되면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개인당 세금 증가가 평균 £ 1,000에 이른다는 주장으로 이해관계프레임을 걸었다. 독립찬성진영 측은 독립하게 되면 개인별로 £ 600 더 많은 이득을 안겨 준다는 보고서(blueprint)를 공표하여 현상타파를 꾀하였다(2013.11.26.). 이는 영국 재무부의 주장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특히 이 보고서는 보수당 정부가 도입한 불합리한 복지개혁, 예컨대 빈방세(Bedroom Tax)<sup>30)</sup> 같은 정책을 폐지할 것을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취학 전 아동 모두에게 무료로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제도의 목적은 일과 가정의 양립에 있고 이는 여성을 일터로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고, 더 나은 국부를 창출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sup>31)</sup>

이에 대해 옥스퍼드 대학의 맥리언(Iain McLean) 교수는 독립찬성진영 측의 주장을 환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 오히려 모든 스코틀랜드 사람은 독립이 되면 개인당 £ 480의 생활수준의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 근거는 석유 수입의 저하에 기인하는데, 공식 자료의 수치를 인용하여 만약 독립하면 스코틀랜드 정부의 재정은 25억 파운드(£ 2.5 billion) 정도 더 적자일 것이라고 계산하였다. 이 수치는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현재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향유하려면 개인 1인당 £ 480를 더 세금으로 내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 대안은 NHS나 교육, 또는 국민연금의 기초부문(state pension)의 축소뿐이다. 그 의미는 가계부채나 주택구입 임차금(mortgage)에 더 높은 이자를 부담함으로써 독립된 스코틀랜드가 장기적으로 더 부유해질 것이라는 주장은 난센스라는 것이다.<sup>32)</sup> 즉 새먼드 제1장관의 장담과는 달리 상당히

30) 2013년 4월 1일부터 복지개혁의 일환으로 복지혜택을 받으면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빈방(spare bedroom)을 가지고 있으면 복지혜택을 깎도록 하였다. 이 조치는 일할 수 있는 나이의 사람(working age)으로서 주택수당을 요구하는 이들에게만 적용되는데 이를 통상 bedroom tax라고 한다.

31) <http://news.sky.com/story/1173661/scottish-independence-600-better-off-claim>와 [http://www.huffingtonpost.co.uk/nick-beecroft/scotland-economy\\_b\\_5796312.html?utm\\_hp\\_ref=uk&ir=UK](http://www.huffingtonpost.co.uk/nick-beecroft/scotland-economy_b_5796312.html?utm_hp_ref=uk&ir=UK) 및 <http://www.telegraph.co.uk/news/uknews/scottish-independence/11072339/Every-Scot-480-worse-off-under-independence.html>를 참조하라.

32) <http://www.telegraph.co.uk/news/uknews/scottish-independence/11072339/Every-Scot-480-worse-off-under-independence.html>를 참조하라.

비관적(ridiculously pessimistic)임을 학계(the academic)에서 지적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한 의미에서 재정을 살펴보자. 스코틀랜드의 재정적자는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3> 스코틀랜드의 재정적자

		스코틀랜드	전체 UK
population		8.3%	100%
2012-13 회계년도		£ 12.1bn	£ 114.8bn
2012-13 회계년도	tax revenue	9.1%	100%
	tax per head	£ 10,000	£ 9,200 (except Scot.)
2011-12 회계년도		£ 8.6bn	£ 117.4b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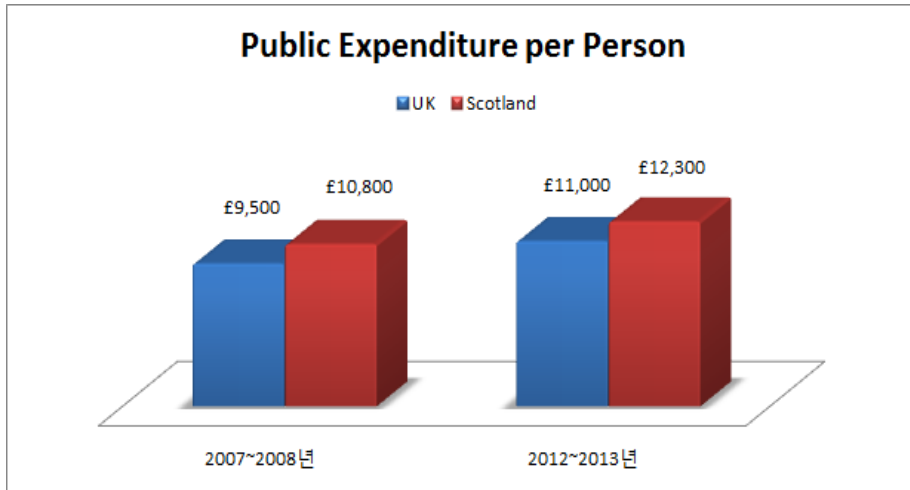
Source: Government Expenditure and Revenue Scotland (GERS)

위에서 보듯이 2011/12 회계년도 기준으로 2012/13 회계연도를 볼 때에 스코틀랜드의 결손분(deficit)이 350억 파운드(£ 3.5bn)가 증가하였다. 원유 수입을 제외하면 그 결손분이 2012/13 회계연도에 176억 파운드(£ 17.6bn)로 GDP의 14% 라고 한다. 물론 최근에는 점점 줄어들고 있기는 하다.

정부 통계(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figures)를 더 살펴보면 스코틀랜드의 견지에서 먼저 2012-2013 회계연도의 세금을 살펴보자. 스코틀랜드에서 생성된 총세금수익(Tax revenue)은 530억 파운드(£ 53bn)로 전체 영국의 9.1%를 차지하고 있다(스코틀랜드 주민이 전체 영국인구 중 8.3%). 개인당 세금을 계산하면 스코틀랜드에서는 £ 10,000로 나머지 영국 지역에 개인당 세금은 £ 9,200과 비교해 볼 수 있다(Source: Government Expenditure and Revenue Scotland).

이를 지출의 측면으로 전환하면, 스코틀랜드는 평균 이상이다. 2012-2013 회계연도의 공공지출의 총액은 652억 파운드(£ 65.2bn)로 추산되며, 전체 영국 총지출의 9.3%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1인당 기준으로 환산한 그림이 아래 그림이다.

〈그림 7〉 1인당 공공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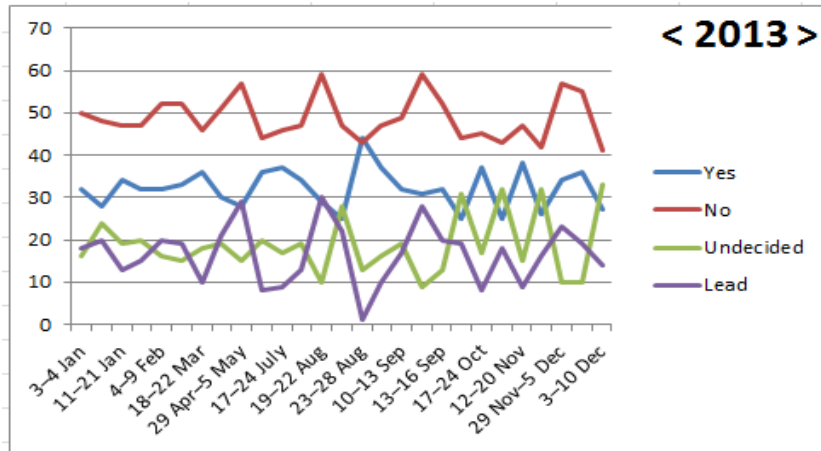


2012-2013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이상의 수치를 종합하면, 12억 천만 파운드(£ 12.1bn)의 부족이라는 결론이다(£ 65.2bn - £ 53.1bn = £ 12.1bn).<sup>33)</sup>

그러나 이 프레임은 의도와는 달리 스코틀랜드 사람들로 하여금 상당한 반응을 얻어서 독립의 효용성에 관심을 가지게 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지지율의 상승을 견인하였다. 즉 독립찬성진영 측은 성공으로 간주하였고, 독립반대진영 측은 프레임 전환의 필요성을 인지하였다. 다만 2013년도에도 굴절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독립 반대의 지지율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 중 특별히 언급할 만한 것은 독립의 청사진으로 2013년 11월 26일 스코틀랜드 정부에서 발간한 「스코틀랜드의 미래」의 영향으로 독립지지율이 높아진다. 예컨대 그 이전인 2013년 10월 20일과 26일 사이의 여론조사에는 독립지지율이 26%, 반대하는 지지율이 42%, 미정이 32%로, 반대지지율이 16%의 리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의 미래」의 발간 이후 2013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 사이 조사한 여론에는 독립 찬성이 34%, 반대지지율이 57%, 미정(undecided)이 10%로, 독립 반대가 23%의 우위를 보였다. 이는 유권자가 점점 미정 쪽으로 바뀌어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33) 같은 회계연도에 영국의 예산은 £ 117.4bn이다.

<그림 8> 2013년의 여론추이



위 <그림 8>에서 보듯이 London 측은 이를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하였고 그 결과로 나타난 프레임이 통화동맹 프레임이었다.

## 2) 통화동맹(Currency union) 프레임으로 전환

통화동맹프레임이란 독립한 스코틀랜드가 파운드화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의 시각이다. London은 사용할 수 있으려면 통화협정이 필요하고 통화협정은 주권이양과 관련되어 있고, 따라서 현실적으로 독립이 불가능하다는 표현의 다른 버전이다. 그러나 독립찬성진영 측은 파운드화는 공동의 자산으로 영국이 독점할 수 없으며, 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영국과 스코틀랜드 모두에게 이득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당신의 주머니에 파운드화(pound in your pocket)’로 표현하면서 스코틀랜드 유권자의 불안을 잠재우려 하였다. 이에 대해 London은 여·야 3당의 공동 성명으로 스코틀랜드가 독립하면 파운드화를 사용할 수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는데, 그 이유는 최후의 빛 청산인인 영란은행이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독립한 다른 나라의 빛을 보증해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는 주장이다. 이 프레임으로 당분간은 효력이 있어서 찬성률이 정체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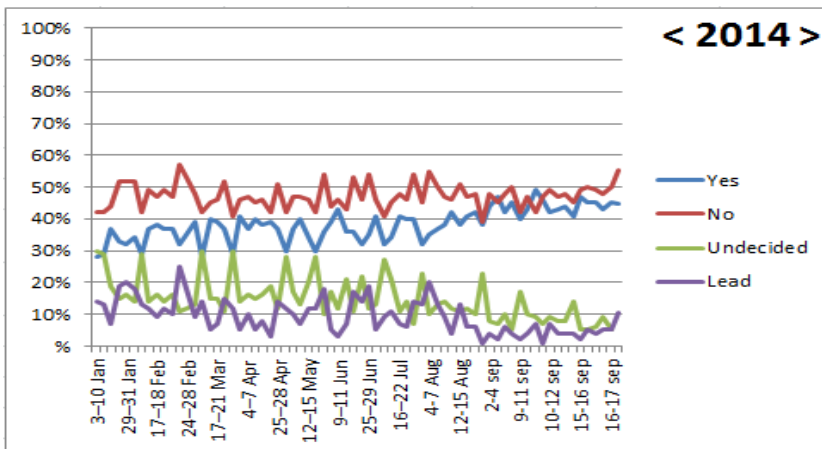
독립하더라도 스코틀랜드가 EU에 가입하는 것도 어렵고<sup>34)</sup> 그렇다고 통화동맹 없이 파운

<sup>34)</sup> EU는 현재의 유럽 정치지형도에 기초하고 있어서 이에 변화를 꾀하는데 반대한다. 스코틀랜드의 EU 가입은 현재의 유럽 정치지형도의 변화를 꾀하기에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스페인 등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켜 스코틀랜드의 EU 가입을 반대할 것이라 공언하였다. EU 가입은 회원국의 만장일치제로 인하여 회원국 어느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가입하기 어렵다.

드화를 쓸 수도 없고, 독립하면 파운드화를 사용할 수 없다는 London의 완고한 태도로 독립 찬성진영은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독립찬성진영 측은 만약 공동의 자산인 파운드화를 나누어 가지지 않으면, 독립 후 영국의 부채를 영국과 나누어 가질 때 부채 인수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바로 역풍을 불러 일으켜 부채의 인수거부는 신생국 스코틀랜드의 지불불능상태(default)를 의미하며, 이는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차선책으로 파나마에서처럼 미국의 허락 없이 달러를 사용하듯이, 파운드화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비쳤다. 그러나 이 주장은 이자율 결정 등의 금융정책에 스코틀랜드의 목소리가 배제되어 현재보다도 더 나쁜 이른바 신식민주의(新植民主義)라는 반론에 부딪혔다. 결국 SNP나 독립찬성진영 측이 가장 잘못 대처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지적에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sup>35)</sup> 통화동맹프레임에서 실족(失足)하는 것을 보면서 이슈 생산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용가능성이 높은 프레임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독립찬성진영 측의 시각인 '미래를 향해 낙관적으로, 또 젊은이를 위하여'라는 목표에 기초하여 앞서 언급한 투표연령을 16세까지 인하한 영향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후 여론조사에서 독립 지지율이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그러나 London의 관점에서는 아직까지는 과반수를 넘지 않아 조금은 여유가 있었고 따라서 통화 프레임에 계속 고집하고 있었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아래 <그림 9>이다.

<그림 9> 2014년의 여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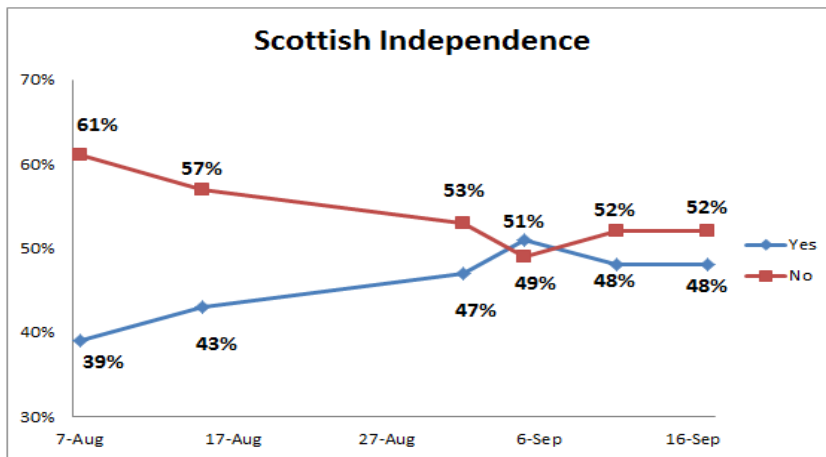
35) <http://www.bbc.com/news/uk-scotland-scotland-politics-29043878>



### 3) 인물 프레임과 삶의 질 프레임 추가

시기적으로 제일 중요한 2014년 9월 6일경에 여론 조사 기관인 YouGov가 발표한 여론 조사에서 처음으로 독립지지율이 독립반대를 근소한 차이이지만 앞질러 역전에 성공하였다 (2014. 9. 6).<sup>36)</sup> 그 이유는 이성(head)보다 감정(heart) 요소가 압도한 것이었고, 투표 연령인하효과가 서서히 나타났었다는 것이다. 이에 관한 정보가 아래 그래프로 나타나 있다.

<그림 10> 2014년 8월과 9월의 독립에 관한 여론 추이 현황



이 지지율 역전으로 인한 London의 당황은 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접근이 필요했고 이에 프레임 전환으로 새로운 인물, 즉 스코틀랜드 출신의 고든 브라운(Gordon Brown) 前 영국 수상이 전면에 등장하였다.<sup>37)</sup> 브라운 前 영국 수상은 SNP의 독립에의 길을 비판하였을 뿐만 아니라, 캐머론 영국 수상이 이끄는 현 보수당 정부의 스코틀랜드 정책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특히 부자들은 감세 혜택(tax cuts)을 받는데 비해,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뜻에 어긋난 대표적 정책인 현 보수당 정부의 빈방세 (bed room tax)에 대해 공격하였다. 그의 설득은 스코틀랜드 사람으로 하여금 냉철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한편 독립찬성진영 측은 통화동맹 불가로 인한 곤란한 입장에서 벗어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NHS를 논쟁의 핵심으로 하는 삶의 질 프레임을 등장시켜서 통화동맹프레임에서 벗어나려 하였다. 여기에서 독립의 핵심적 사항으로 NHS가 등장하고 삶의 질 프레

<sup>36)</sup> <http://yougov.co.uk/news/categories/scottish-independence/?page=2>

<sup>37)</sup> 지역구는 스코틀랜드 Kirkcaldy and Cowdenbeath 출신이다.

임으로 전환이 이루어졌다.

독립찬성진영 측은 보수당 정부의 정책인 ‘잉글란드에서 NHS의 민영화’는 스코틀란드 사람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준다고 주장하고, 이를 막기 위해 스코틀란드가 독립하면 독립헌법에 무료 건강서비스(free healthcare)의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선언하였다.<sup>38)</sup> NHS와 관련된 가장 큰 문제는 노령화인구(Aging population)로 그 중에서도 기대 수명(Life expectancy)만을 살펴본다. 스코틀란드가 독립하면 남자의 경우 79.1세로, 가장 장수하는 스웨덴에 근접하고(스웨덴: 79.9세), 여성은 82.9세로 가장 장수하는 스페인에 가까워진다(스페인: 85.1 세).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상당한 예산이나 인력이 NHS에 투입되어야 하고 북해에서 나는 원유 이익으로 다른 재정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NHS 비용을 커버할 수 있는가가 이슈가 되었다. 즉 NHS 미래가 독립찬성진영 측과 독립반대진영 측에 핵심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에 고든 브라운 前 수상은 잉글란드 사람들과 웨일즈 사람들의 90%는 NHS가 공적(公的)으로 운영되어,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의 원형인 “이용 시점에서는 무료”인 제도로 남아 있을 것이며<sup>39)</sup> ‘NHS의 민영화는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즉 미래의 스코틀란드 NHS의 방향을 중심으로 한 삶의 질을 둘러싸고 독립이 옳은지 자치권 확대가 옳은지는 2014년 9월 18일의 정치적 결정으로 막을 내렸다.

### 3. 프레임 검증

이상에서 제시된 프레임들을 아래의 잣대를 중심으로 검증해 본다. 그 기준은 앞서 밝혔듯이 YouGov의 여론조사를 참고하여 아래의 쉐컬러스에 대입해 보는 것이다.

〈켈쿨러스 1-2〉 ‘ $\alpha$ ’ 는 ‘ $\beta$ ’을 스코틀란드 독립사태에서만 명명한다.

〈켈쿨러스 2-2〉 ‘ $\alpha$ ’ 는 모든 ‘ $\beta$ ’ 에 대해 스코틀란드 독립사태에서 수용가능하다.

이를 검증하면 아래 쉐컬러스와 같은 형식을 밟는다.

38) 그러나 이 또한 현장의 의사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다. 왜냐 하면 권한 이양의 협정에 따라 NHS가 이미 스코틀란드의 자치권의 대상이 되어서 정책결정은 스코틀란드 정부의 몫이기 때문이다. 또 어떠한 민영화도 모두 악(evil)으로 보는 것도 문제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도 치과 의사(dentists)와 광학사(opticians)는 민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환자들은 NHS에서는 대기시간이 길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러 민영 병원을 이용하고 있다. NHS가 어떻게 노령화와 기술의 진보에 대처할 것인가, 또 이를 위해 의료서비스(health service)를 어떻게 환자와 지역과의 연관을 것인가가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39) [http://www.huffingtonpost.co.uk/2014/09/06/gordon-brown-blames-yes-surge-in-scottish-independence-battle-on-tories\\_n\\_5777710.html?utm\\_hp\\_ref=mostpopular](http://www.huffingtonpost.co.uk/2014/09/06/gordon-brown-blames-yes-surge-in-scottish-independence-battle-on-tories_n_5777710.html?utm_hp_ref=mostpopular)

<캘큘러스 3-2> ‘a’ 는 ‘β’일 경우에만 스코틀란드 독립사태에서 유효하다.

<표 4> 프레임 검증

제기	명명	수용가능성	유효성
제1기	이해 관계	양측 수용가능	① London : 유효하지 않음 ② 독립찬성진영 : 유효
① 독립찬성진영 : 예상 외의 독립지지율 상승세 ② London : 프레임 전환 필요성 느낌(통화동맹 프레임으로 전환)			
제2기	통화 동맹	① London은 통화동맹 불가로 프레임 전환 ② 스코틀란드 정부 : 통화동맹 가능 주장 ③ London의 3당 합의 : 절대 불가	① London : 유효 ② 독립찬성진영 : 유효하지 않음
① 스코틀란드 정부 : 파운드화 사용에 대한 대안이 없음이 밝혀짐 ② 이성(head)보다 감성(heart) 요소가 지속적으로 압도 [통화동맹의 무산에 따른 당분간의 고통을 감수하고자도 독립운동의 확산] ③ 독립찬성진영: 프레임 전환 필요성 느낌(삶의 질 프레임으로 전환) *여론조사에서 독립지지율 역전 ④ London: 이성(head)보다 감성(heart) 요소가 압도한데 대한 프레임 전환 필요성 느낌 (스코틀란드 출신 Gorden Brown 등장)			
제3기	Gorden Brown vs. 삶의 질	① London : Gorden Brown을 앞세워 'NHS의 민영화는 불가능하다'는 메시지 ② 독립찬성진영 측 : NHS의 민영화로의 정책이 계속된다는 메시지 ③ 따라서 독립만이 이를 막을 수 있다는 메시지	① London: Gorden Brown 등장이 유효함. 독립찬성진영의 민영화 주장을 잘 방어함 ② 독립찬성진영: 독립이 NHS의 민영화를 막는 길: 유효하지 않음
결론	자치권 확대(Devo-max)의 제도화의 문제 : 선거 기간 중 약속했던 공약 이행요구		

## V. 한국에의 시사점: 결론에 대신하여

영국 스코틀란드의 지방자치와 독립논의 프레임에서 본 시사점은 우선 많은 이슈의 제기 보다는 프레임 설정이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시의적절한 이슈라 하더라도, 또 거기에 대한 대응성(responsiveness)에 민감하더라도, 대중이 바라보도록 하는 프레임이라야만 의도한 바를 성취하는 지름길이라는 의미이다. 이해관계프레임이나 통화동맹프레임, 삶의 질 프레임 등이 그러하다. 다른 사항들을 요약해 본다.

① 양쪽 모두 어느 정도 근거 있고 설득력 있는 프레임인 경우는 비교적 오래 지속된다. 이해관계 프레임이 바로 그러하다.

② 프레임이 어느 하나만이 선택의 범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옵션을 가지고 있다면 그 중 어느 것이 효과적인지를 예상하여 프레임을 건다. 그 어느 하나가 효력이 있다면 상대방에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한다. 즉 어느 한쪽의 프레임이 수용가능성의 논리에서 밀리게 되면 상대방은 여론의 추이를 보고 프레임 전환을 꿈꾼다.

③ 통화동맹프레임에서 보듯이 일관성 있게 예상되는 논쟁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즉 완벽한 논리로 프레임을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프레임의 어느 한 부분이 결함을 나타내면 그 하위주장들은 계속 영키게 된다. 통화동맹 프레임에서 파운드화를 못 쓰게 하면 스코틀랜드 몫의 국가부채를 인수하지 않겠다는 주장은 신생국에 지불불능상태(default)를 초래하고 이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여기에 해당한다.

④ 상대방의 프레임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주도하는 인물의 교체를 통해 프레임 전환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즉 일반 대중 또는 유권자에게 인물의 신뢰성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같은 지역 출신 달링 前 재무장관보다는 고든 브라운 前 수상을 신뢰했음은 그 이후의 여론 조사가 보여주고 있다.

이상에서 영국 스코틀랜드의 지방자치와 독립논의를 프레임의 눈으로 살펴보았다. 이 글의 주제만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표 1>의 여러 자치 방법 중에서 자치권 확대(devolution plus)가 스코틀랜드 인을 포함한 영국인들이 합의한 자치의 방식이라는 함축이다. 이 논의의 시사점은 프레임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는 지름길이라는 의미이다.

## 【참고문헌】

- 강민아·장지호. (2007) “정책결정과정의 프레임에 대한 담론 분석: 방사성폐기물처리장입지 선정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제41권 제2호), 한국행정학회, pp.23-45.
- 강신택. (1981) 『사회과학 연구의 논리:정치학·행정학을 중심으로』, 서울: 박영사.
- 곽호완·박창수·이태영·김문수. (2004) 『실험심리학 용어사전』 (인터넷 판), <http://www.cogpsych.org/dict/>.
- 김동환. (1999). “틀 의미론과 의미구조.” 『언어과학연구』(vol.16), pp.73-101.
- 김영정. (1997). 『언어·논리·존재: 언어철학·논리철학 입문』, 서울: 철학과 현실사.
- 김창수. (2007). “개발과 보전의 프레임 과정과 정책분쟁: 김해 매리공단 추진사례의 시간적 이해.” 『정부학연구』(제13권 제3호), 고려대정부학연구소.
- 김창수. (2008).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딜레마: 천성산 원효터널 분쟁의 프레임 분석.” 『지방정부연구』(제12권 제1호), 한국지방정부학회.
- 김창수. (2010). “개발과 보전의 딜레마: 구조와 프레임의 해부.” 『한국사회와 행정연구』(제20권 제4호), 서울행정학회.
- 김창수. (2011). “포스트 4대강 사업과 낙동강 상수원의 딜레마: 남강댐 물 분쟁의 제도적 프레임 분석.” 『한국행정논집』(제23권 제2호), 한국정부학회.
- 김춘식·이영화. (2008).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에 관한 뉴스 프레임 연구: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 보도 분석을 중심으로.” 『韓國言論學報』(제52권 2호). pp. 303-327.
- 노양진. (1999). “체험주의의 은유이론.” 한국분석철학회 (편) 『언어·표상·세계』, 서울: 철학과현실사.
- 박은진. (1999). “반증과 반증주의.” 조인래 (외) 『현대과학철학의 문제들』, 서울: 아르게.
- 반현·백강희·김수정. (2010). “한미(韓美)언론의 북핵 위기 프레임 효과 연구: 미디어 프레임, 수용자 프레임, 그리고 스키마를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Vol. 17), pp. 123 - 168.
- 신중섭. (2002). “과학적 연구프로그램의 방법론 역사해제.” 『과학적 연구프로그램의 방법론』, 서울: 아카넷.
- 심준섭. (2010). “질적 연구에 대한 소고: 질적 연구에서 ‘질적’의 의미.”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
- 심준섭. (2012).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갈등 프레임 비교분석.” 『한국행정학보』(제50권 제4호), 한국행정학회, pp.221-249.
- 심준섭·김지수. (2011a).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주민의 갈등프레임분석: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제45권 제3호), 한국행정학회, pp.173-202.
- 심준섭·김지수. (2011b). “갈등연구에서 프레임 분석의 적용가능성: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제25권 제3호), pp.29-64.

- 심형구·김창수·양기용·김성우. (2014). “고압송전선로 건설갈등의 프레임 분석: 기장군과 밀양시 주민인식조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제26권 제2호), 한국정부학회.
- 오주영. (2010). “틀 의미론을 통한 인지적 의미학습에 관한 연구.” 『비교문화연구』(vol.19), pp.295-311.
- 은재호. (2011) “국방·군사시설 입지갈등의 원인 분석: 담론분석을 통한 원인진단 지표 개발.” 『한국행정학보』(제45권 제4호). pp. 55-84.
- 은재호·김형성·최대용 (2011) “국방·군사시설 입지갈등의 원인과 해법: 제주해군기지 사례의 교훈.” 『한국정책학회보』(제20권 제2호). pp. 319-352.
- 이광석. (2014). “영국의 지방정부.” 이광석 (외) 『국제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 이광석·문유석. (2014). “행정학의 논리형태와 논증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제18권 제2호), 한국지방정부학회, pp.427-454.
- 이준웅. (2000). “프레임, 해석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효과.” 『언론과 사회』(제29호), pp. 85-153.
- 이지은. (2008). “담론분석적 서술이론.” <http://blog.empas.com/jdyi8589/read.html?a=28264775>.
- 장덕현·김근배. (2012). “시간 거리, 조절초점 프레임 간 적합이 선호에 미치는 영향: 정치적 설득에서 자이일치성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 광고』(13권4호), pp.617-644.
- 정대현. (2010). “이론적 다원주의, 담론적 다원주의: 학문의 한국화 담론의 구조.”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pp.7-20.
- 최인철. (2007). 『프레임』 서울: 21세기북스.
- 하치근. (2010). “언어능력과 인지능력의 상관관계.” 『한글』(제287호), pp. 5-44.
- Benton, Ted. (1977).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the Three Sociologies*,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Brown, Gillian·George Yule. (1983). *Discourse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almers, Alan Francis. (1982). *What is this thing called Science?: An assessment of the nature and status of science and its method*, St. Lucia: University of Queensland Press, 신일철·신중섭 (옮김). (1985). 『현대의 과학철학』 서울: 서광사.
- Charlton, William. (1991). *The Analytic Ambition: An Introduction to Philosophy*, Oxford: Blackwell, 한상기 (옮김). (2011). 『분석철학의 야심』서울: 서광사.
- Chomsky, Noam. (1966). *Cartesian Linguistics: A Chapter in the History of Rationalist Thought*, London: Harper and Row.
- Chomsky, Noam. (2006). *Language and Min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 Press.
- Doxiadis, Apostolos·Christos Papadimitriou. (2009). *Logicomix: : An Epic Search for Truth*, London: Logicomix Printed Ltd., 전대호 (옮김). (2011). 『로지코믹스』 서울: 랜덤하우스.
- Gibson, Martha I. (2004). *From Naming to Saying*, Oxford: Blackwell Publishing.
- Hakoda, Yuji·Hideaki Kawabata·Shigeru Hagiwara. (2010). 강윤봉 (옮김). (2014). 『인지심리학』 서울: 한국뇌기반교육연구소.
- Harris, Roy. (1988). *Language, Saussure and Wittgenstein: How to play games with words*, 고석주 (옮김). (1999). 『소쉬르와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서울: 보고사.
- Lakatos, Imre. (1978). *The Methodology of Scientific Research Programmes: Philosophical Paper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신중섭 (옮김). (2002). 『과학적 연구프로그램의 방법론』 서울: 아카넷.
- Lakoff, George·Mark Johnson. (1981). *Metaphor We live by*,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노양진·나익주 (옮김). (2014). 『삶으로서의 은유』 서울: 박이정.
- Lakoff, George. (2004). *Don't think of an Elephant: Know your Values and Frame the Debate*, New York: Chelsea Green Publishing Co., 유나영 (옮김). (2006). 『코끼리는 생각하지마』서울: 삼인.
- Lakoff, George. (2006). *Thinking Points: Communicating Our American Values and Vision*, Tides Center: Rockridge, 나익주 (옮김). (2007). 『프레임 전쟁』서울: 창비.
- Lentricchia, Frank·Thomas McLaughlin (eds.). (1995). *Critical Terms for Literary Stud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acdonell, Diane. (1986). *Theories of Discourse: An Introduction*, New York: Basil Blackwell, 임상훈 (옮김). (1992). 『담론이란 무엇인가』 서울: 한울.
- Munz, Peter. (2004.) *Beyond Wittgenstein's Poker: New Light on Popper and Wittgenstein*, Aldershot: Ashgate.
- Munitz, Milton K. (1981). *Contemporary Analytic Philosophy*,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박영태 (옮김). (1996). 『현대분석철학』 서울: 서광사.
- Nickles, Thomas. (1987). "Methodology, Heuristics, and Rationality." edited by Joseph C. Pitt and Marcello Pera. *Rational Changes in Science: Essays on Scientific Reasoning*, Dordrecht: D. Reidel Publishing Company.
- Quine, Willard Van Orman. (1961). *From a Logical point of view*, New York: Harper and Row, 허라금 (옮김). (1993). 『논리적 관점에서』 서울: 서광사.
- Raadschelders, Jos C. N. (1998). *Handbook of Administrative History*, New Brunswick, N.J., : Transaction Publishers.

- Romanos, George D. (1983). *Quine and Analytic Philosophy: The Language of Language*, Cambridge, Mass.: Th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광강제 (옮김). (2002). 『콰인과 분석철학』 서울: 한국문화사.
- Sarup, Madan. (1993). *An Introductory Guide to Poststructuralism and Postmodernism*, Athens: University of Georgia Press, 임현규 (번역). (1992). 『데리다와 푸코,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 입문적 안내』 서울: 인간사랑.
- Saussure, Ferdinand de. (1972). *Cours de Linguistique Generale*, Paris: Payot, 최승언 (옮김). (1990). 『일반언어학강의』 서울: 민음사.
- Scottish Government. (2013). *Scotland's Future: Your Guide to an Independent Scotland*.
- Tannen, Deborah. (1993). "What's in a Frame? Surface Evidence for Underlying Expectations." edited by Deborah Tannen. *Framing in Discours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Wittgenstein, Ludwig. (1978).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Oxford: Basil Blackwell.

**이 광 석:** 영국 University of Newcastle upon Tyne에서 사회정책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관심분야는 복지행정, 행정언어, 다문화행정 등이다. 최근 논문으로는 행정학에서의 질적평가에 관한 연구: 새마을운동에 관한 논쟁을 중심으로 (2015), 행정학의 논리형태와 논증에 관한 연구(2014), 행정과 생활세계의 충돌과 조화에 관한 연구: 의식의 흐름방법을 적용한 밀양 송전탑 사태의 분석(2014) 등이며, 최근 저서로는 정책으로서의 행정언어: 국어정책론(2016), 복지언어론: 복지정책학의 과학철학(2016), 복지모순론(2015) 등이 있고, 번역서로는 해석 현상학적 분석(Interpretative Phenomenological Analysis)(2015)이 있다.

**권 기 석:** 2010년에 영국 University of Sussex에서 Universities' academic research and knowledge-transfer activities in a catch-up country라는 논문으로 과학기술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밭대학교 공공행정학과에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주요 관심 연구분야는 기초과학정책, 빅데이터를 통한 정책아젠다 도출, 산학협력 등이다. 최근 발표된 논문으로는 방향·가중 네트워크 기반의 상품네트워크 모델링 방안과 상품분류기준에 관한 연구(권기석/정석봉, 2016), The impact of graduate students on research productivity in Korea(권기석 외, 2015), Network, Channel, and Geographical Proximity of Knowledge Transfer(권기석, 2015) 등이 있다.